

무게중심 이동 원리로 물벼락을 쏟는 여수 디오션리조트 '아쿠아플레이'.

워터파크 과학 원리, 알고 타면 더 재밌다

60km 가속도로 공중부양 효과 전기·유압 없는 물벼락 즐기기 공기펌프로 만든 파동 '파도풀'

◇로켓슬라이드 중력과 원심력=로켓 슬라이드는 여수 디오션리조트 워터파크 의 대표적인 물놀이 기구다. 기본적으로 놀이공원 롤러코스터와 비슷하지만 레일 위가 아닌 물길을 따라 타는 게 다르다. 여 기엔 중력과 원심력이라는 과학원리가 숨

지상 16m 높이에서 중력에 의해 아래 로 떨어지면서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 로 변화된다. 이에 따라 가속력이 붙어 아 찔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다. 로켓슬라이 드를 타면 커브 구간에서 몸이 튕겨져나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도 막상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구가 당기는 힘(중력)보다 바깥으로 튕겨나가려는 힘(원심력)이 크 게 작용하기 때문이다.

또 한가지 재밌는 과학 원리가 숨어 있 다. 바로 자기부상(磁氣浮上) 원리다. 자연 법칙에 순응해 위에서 높은 곳에서 아래 로 떨어지는 것만 아니라 자기장의 힘을 빌어 자연법칙을 역행하는 것이 특징이 다.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, 아 래에서 위로 솟구치며 올라가는 것도 가능 하다는 말이다.

위로 올라가는 부분에 마그네틱을 설치 하고 탑승보트에 부착된 자석의 힘을 이용 해 밀어올리는 방식이다. 내려오는 가속 도와 물의 부력까지 더해지면서 레일 등 별다른 지지대 없이도 230m 구간 오르락 내리락 물길을 즐길 수 있다.

◇관성의 법칙 다이렉트 슬라이드=17

워터파크 물놀이 시설에 숨은 과학



관성의 법칙 다이렉트 슬라이드



무중력 체험 더블토네이도

m 높이에서 순식간에 미끄러져 내려오는 다이렉트 슬라이드. 외형은 놀이터에 있 는 미끄럼틀과 비슷하지만 막상 타보면 아 찔하다. 튜브 없이 맨몸으로 시속 60km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90m를 미끄러져 내 려오는 이 슬라이드에는 관성의 법칙이 숨어 있다.

완만한 경사면에서 출발해 갑자기 급한 경사면을 내려가면 순간 속도가 증가한 다. 즉 가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슬라이드 를 타던 사람은 관성력을 느껴 몸이 공중 에 붕 뜨는 듯한 기분을 받는다.

쉽게 빠르게 달리던 자동차가 언덕길을 내려갈 때처럼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듯 한 아찔한 느낌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다. 슬라이드는 아래 방향으로 꺾어졌는데 몸 에는 조금 전까지 관성이 남아 있기 때문 이다.

◇무중력 체험 더블토네이도=12.87m 높이에서 중력에 의해 왕복운동을 하며 빨려들어가는 더블토네이도. 이 기구는 중력과 무중력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.

놀이공원의 대표적인 시설 '바이킹'에서 처럼 올라갈 때의 긴장감과 내려올 때 쾌 감을 즐길 수 있다.

튜브를 타고 원형 통로를 내려가다 보면 갑작스레 넓어진 '소라' 모양의 공간이 나 온다. 이때 튜브는 좌우로 움직이는데, 정 점의 순간을 찍고 내려오기 직전 아찔한 쾌감이 느껴지는 무중력 원리가 작동한 다. 무중력 순간에는 귀속에 들어 있는 반 고리관과 전정기관이 자극을 받아 방향감 각과 균형감각을 잃게 된다. 그래서 아찔 한 현기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.

◇아쿠아플레이의 무게중심=아쿠아 플레이는 전기나 유압 없이 중력과 무게중 심에 의해 작동되는 기구다. 공중에 달린 큰 물통은 앞부분과 뒷부분 비대칭을 이 룬다. 물이 점차 차오르다가 가득 차는 순 간 무게중심이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동하 게 되고, 아쿠아플레이가 앞으로 기울어지 며 물벼락을 쏟아 붇는 것이다. 물이 다 쏟 아지면 다시 무게중심이 앞에서 뒤로 이동 하면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간다.

◇파동의 원리 나인스톰 파도풀=바다 에서 보는 파도는 단순히 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람이 만든 파동이 다. 바다 위를 빠르게 지나가는 공기의 압 력에 의해 해수면의 물이 밀리면서 생긴 파동이 해안까지 전달되는 것이다. 파도 가 밀려오는 해수욕장에서 물이 해변 쪽 으로 밀려가지 않고 위아래로만 오르락내 리락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.

나인스톰 파도풀의 파도도 역시 공기를 이용해 만들어진다. 공기펌프를 이용해 9 개의 물탱크에 공기를 밀어 넣어 물을 밖 으로 내보냈다가 다시 빨아들이면서 파도 가 생기는 것이다.

> /박기웅기자 pboxer@kwangju.co.kr /여수=김창화기자 chkim@

'512살' 상어, 최고령 척추동물 등극

척추동물 가운데 어떤 동물이 가장 오 래 살까. 거북? 틀렸다. 상어가 정답이

영국 BBC에 따르면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팀은 어선 그물에 우연히 걸 린 그린란드 상어 28마리를 방사성탄소 측정법으로 나이를 잰 결과 젊게는 274 살, 늙은 것으로는 512살까지 이르렀다 고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최근 발표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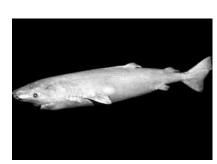
연구팀 율리우스 닐센 해양생물학 교 수는 그린란드 상어가 1년에 1cm씩 자란 다면서 그물에 걸린 28마리 중 길이가 5 m인 암컷은 최소 400살로, 조선시대 중 반인 1590년대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

지금까지는 211살로 추정되는 북극고 래가 최장수 척추동물로 알려졌다. 무척 추동물로는 '밍'이라고 부르는 대서양 연안산 대합류 조개가 507살로 측정됐

성장도 느리지만, 깊은 바다에서 굼뜨 다. 게 움직이는 이 상어는 150살이 돼야 성 숙해 짝짓기가 가능하다.

닐센 교수팀은 이 상어의 각막에 있는 단백질이 재생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점에 착안해 방사성탄소 측정법으로 새 끼 때의 각막 단백질의 연도를 쟀다.

상당수 물고기는 귓속뼈인 이석(耳



그린란드 상어

石)의 단면에 나무의 나이테처럼 나타나 는 동심원으로 나이를 추정하고, 백상아 리의 경우 등뼈에 켜켜이 자라 쌓인 석 회화한 조직으로 나이를 측정한다.

그린란드 상어는 간의 기름을 기계유 로 사용하기 위해 남획되다가 세계 2차 대전 이후 합성유가 개발되면서 수요가 급감했다. 그러나 한번 남획된 후 새끼 들이 자라 번식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려 아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

닐센 교수는 "북대서양 전체의 분포 로 볼 때 성숙한 암컷이나, 새끼, 청소년 기의 그린란드 상어를 찾아보기 어렵 다"며 "상어가 사람으로 치면 대부분 10 대인 만큼 짝짓기를 해 후손이 번성하려 면 앞으로 100년은 더 걸릴 것"고 BBC 에 말했다.

"태양과 최단 거리 '지구 닮은 행성' 발견"

유럽남부천문대(ESO)가 지금까지 발 견된 외계행성 중 태양과 최단 거리인, 지구를 닮은 외계행성을 관측했다고 독 일 주간지 슈피겔이 지난 13일 보도했

슈피겔은 아직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이 행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인 켄타우루스 프록시마 주위를 공전하고, 생명체의 존재에 필수적인 액체 상태의 물이 표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

이 매체는 켄타우루스 프록시마가 태 양으로부터 단지 4.24광년(약 40조1104 km) 거리라고 소개했다. 이 행성이 최단 거리에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. 또 ESO가 이달 말 이 행성의 발견을 발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.

천문학계는 외계행성 대부분이 수백 광년 떨어져 있어 거의 탐구를 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. /연합뉴스

'후후' 앱도 전화판매 수신거부 가능해요

후후앤컴퍼니(대표 신진기)가 전화권 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'두낫 콜'서비스와 연동해, 어플리케이션 '후 후'에서도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 공한다고 15일 밝혔다.

'두낫콜'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 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서비스로, 핸드폰이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품을 판 매하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수신거부 의 사를 등록하는 서비스다.

기존 후후 이용자가 전화수신 이후 스 팸을 차단했다면, 이제는 '두낫콜' 서비

스 연동으로 후후를 통해 전화권유판매 전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.

후후 이용자는 앱 설정 메뉴 상단 수 신거부의사 등록 배너를 누르고, 수신거 부 의사를 등록하면 손쉽게 차단이 가능 하다.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는 월 1회 이 상 해당 수신거부 리스트를 확인하게 된

한편 후후는 지난 2013년 8월 출시한 스마트폰 기반 발신자 정보식별 · 스팸차 단 앱 서비스로 최근 누적 다운로드 2300만건을 돌파했다.

/박기웅기자 pboxer@kwangju.co.kr

